5부 성경과 우리

성경론 21편 종이에서 마음으로 · 설교, 성례, 마음에 쓰기

프레임 35장 가르침과 설교 · 프레임 36장 성례 · 프레임 39장 인간의 성경 수용 · 프레임 43장 계시로서 인간 · 프레임 44장 마음에 쓰기 · 프레임 45장 요약 및 구조적 성찰 · 바빙크 6장 신앙(§156–160 신앙과 신학, §137–140·§150–155 일부) · 신앙고백서 1.10(1.5·1.6·1.7·1.8 참조) · 신앙고백서 1장 1.10

> ❓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건 알겠는데, 왜 나한테는 안 들릴까?**

🧭 흐름 한눈에

앞 편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는가'를 다뤘다면, 이 편은 그 말씀이 종이를 떠나 내 마음에 닿기까지의 마지막 길을 따라간다. 프레임은 말씀이 세 길로 온다고 말한다.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 귀로, 세례와 성찬을 통해 눈과 손과 입으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본을 통해 삶으로 온다. 그는 또 '안 들린다'는 경험이 말씀을 말씀 아닌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고 분명히 한다. 계시는 내 반응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있다. 바빙크도 경험은 신앙의 저울이 아니라 말씀을 뒤따르는 것이라고 거든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들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새겨지는 것이다. 새 언약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법을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쓰신다. 그래서 프레임은 마음을 계시의 최종 목적지라 부르고, 계시를 일반·특별·실존의 세 관점으로 다시 정리한다. 신앙고백서 1.10은 이 모든 길 끝에서 판결하시는 분이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심을 확인해 준다.

📜 절별 정리

(표시: ★ = 두 책 이상이 함께 드는 기둥 구절 · ◆ = 프레임이 여러 장에서 거듭 드는 구절 · [보충] = 기획에서 제시했으나 이 편 재료의 저자들이 직접 인용하지 않은 구절)

📜 1. 말씀은 귀로 온다: 설교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프레임 35장 · 신앙고백서 1.7)

역사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성경을 직접 읽어서가 아니라 설교와 가르침을 듣고 복음을 받았다. 예수님과 사도들도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먼저 입으로 가르치셨다. 프레임은 여기서 선을 긋는다. 사도의 영감된 선포는 끝났고 정경이 완성되었으니, 하나님 말씀의 출처로는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그래도 바울은 사도가 아닌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므로 설교와 가르침은 계속된다. 제2차 스위스 신앙고백서(1566년, 하인리히 불링거 작성)는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한다. 프레임은 여기서 '말씀'이 설교 행위가 아니라 설교자가 풀어 전하는 성경을 가리킨다고 읽는다. 하나님이 사본과 번역을 쓰시듯 설교도 쓰신다. 그래서 설교자가 성경을 참되게 전하는 만큼 그 말은 성경만큼 권위가 있고, '설교자도 틀린다'는 말은 불순종의 핑계가 되지 못한다. 신앙고백서 1.7의 “배운 사람뿐 아니라 배우지 못한 사람도 통상적 수단을 바르게 사용하면 그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문장도 이 들음의 길과 닿는다.

1. 역사상 복음은 주로 '귀'로 전해졌다
2. 사도의 영감된 선포는 끝, 성경으로 충분
3. 그래도 설교·가르침은 계속 명령된다
4. 성경을 참되게 전하는 '만큼' 하나님 말씀
5. '설교자도 틀린다'는 불순종의 핑계 못 됨

> **디모데후서 4:2**
> 사도가 아닌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설교는 사도 이후에도 계속된다
>
>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 **디모데전서 3:2**
> 감독자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 가르침은 교회가 계속 맡는 직무다
>
>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 **로마서 10:14-17 [보충]**
> 전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이 귀로 오는 길. 프레임은 바로 앞 구절 10:13을 44장에서 '이름을 부름'의 근거로 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류를 범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 프레임

📜 2. 예배 속 말씀은 '가르침': 우리도 서로에게 말씀을 건넨다 (프레임 35장 · 신앙고백서 1.8)

영국 신약학자 다드(1936)는 신약의 '설교'(케리그마)와 '가르침'(디다케)을 주제가 다른 두 소통 방식으로 보았다. 프레임은 두 말이 같은 활동을 가리키며, 설교는 가르침의 한 종류라고 본다. 또 신약은 예배 속 말씀 사역을 '설교'라 부르지 않고 고린도전서 14:26에서 '가르침'이라 부른다. 그 기준은 형식이 아니라 회중의 덕을 세우는가이다. 교회의 공적 가르침은 특별직분(목사·장로)에 속하고, 그 대부분을 안수받은 이에게 맡기는 것은 지혜롭다. 그러나 모든 신자도 일반직분으로 서로 가르치는 교사다. 그래서 소그룹에서 본문을 나누거나 친구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도, 성경의 내용을 바르게 전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화와 적용조차 성경을 참되게 전하면 말씀의 통로가 된다. 동시에 프레임은 '설교의 중심성'이라는 전통적 강조에 의문을 던진다. 중심성은 상대적이고, 개혁자들이 미사를 설교로 대체하면서 성례까지 가볍게 여긴 것은 실수였다는 것이다. 이 판단이 다음 절의 성례로 이어진다.

1. 설교는 가르침의 한 종류, 둘은 겹친다
2. 예배 속 말씀 = 고린도전서 14:26의 '가르침'
3. 기준은 형식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가'
4. 모든 신자는 서로 가르치는 교사
5. 중심성은 상대적, 성례도 대등한 통로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골로새서 3:16 ★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 모든 신자가 교사다(프레임 35장). 신앙고백서 1.8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 안에 풍성히 거하여 그들이 합당한 방식으로 그분을 예배하고”라고 같은 표현을 쓴다

히브리서 5:12

신자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골로새서 1:28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가르침”. 설교와 가르침은 한 일이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중심성은 항상 상대적이다.” — 프레임

📜 3. 성례는 '보이는 말씀': 표, 인침, 임재 (프레임 36장)

프레임은 자기 전통을 반성한다. 개혁주의가 설교를 앞세우다 성례를 소홀히 했으니, 성례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로 다시 보자는 것이다. 성례는 겉으로는 사건이지만 의미를 실어 나른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례를 '보이는 말씀'이라 불렀고, 개혁주의는 세례와 성찬 둘만 성례로 인정한다. 프레임은 성례를 세

보증하시는 '인침'이다(상황적). 셋째,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임재'의 자리다(실존적). 이 효력은 예식을 행하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생기지 않고 믿음을 통해서만 온다. 또 말씀 없는 성례는 뜻이 불투명하고, 성례 없는 말씀은 영향력의 많은 부분을 잃는다. 하나님은 명제와 명령뿐 아니라 말씀에 맞는 그림과 느낌으로도 소통하시며, 그 소통이 머리와 가슴에 함께 닿게 하신다. 그래서 성례도 사본·번역·설교처럼 성경 원문의 말씀을 전하는 언어 계시의 한 형태다.

1. 성례는 의미를 실어 나르는 '보이는 말씀'
2. 표: 복음을 보고 만지고 맛보게 한다
3. 인침: 하나님이 약속에 도장을 찍으신다
4. 임재: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리
5. 효력은 자동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 **로마서 4:11**
> 할례가 믿음의 의를 '인친 것'이었듯, 성례는 은혜언약의 인증서다
>
>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고린도전서 10:16**
>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교제(코이노니아)다
>
>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 **고린도전서 11:26**
>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음을 '전한다'. 성례도 말씀을 선포한다
>
>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경 말씀은 성례에 대한 필요한 해석을 제공한다.” — 프레임

📜 4. 세례와 성찬: 이름이 놓이고, 식탁에 초대받는다 (프레임 36장 · 44장)

세례는 눈에 보이는 교회에 들어가는 입회 의식이다. 표로서 세례는 세 가지를 그려 보인다. 죄 씻음, 회개,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합하는 연합이다. 세례는 삼위의 '한 이름' 안으로 받는다. 그래서 44장에서 프레임은 아론의 축도처럼 세례받은 백성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놓인다고 말한다. 다만 그 이름은 빌린 것이어서 우리를 예배받을 존재로 만들지 않는다. 세례는 언약에 속했다는 인침이지만 영원한 구원을 자동으로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프레임은 세례를 단순한 상징으로 보는 쯔빙글리와 세례 중생설을 모두 거부한다. 성찬은 거듭 받는 교제의 식탁이며 세 시간을 함께 담는다. 과거를 보며 감사로 기억하고(유카리스트), 현재 그리스도께 양식을 받고, 미래의 어린양 혼인 잔치를 기다린다. 화체설에 대해 프레임은 이렇게 답한다. “이것은 내 몸”은 지도를 가리키며 “이것이 프랑스다”라고 하듯 몸을 '나타낸다'는 뜻이고, 단번의 속죄는 반복되지 않는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임재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참여한다는 칼빈의 견해를 지지한다. 이 식탁 뒤에는 시내산의 식사, 화목제, 새 언약의 잔으로 이어지는 성경 전체의 '하나님과의 식탁' 이야기가 흐른다.

1. 세례: 교회의 문, 삼위의 이름이 놓인다
2. 세례는 인침이지 자동 구원이 아니다
3. 성찬: 과거 감사·현재 양식·미래 잔치
4. 칼빈: 영으로 임재, 믿음으로 참여
5. 화해의 끝은 함께 먹는 식탁

> **마태복음 28:19** ◆
> 삼위의 '한 이름' 안으로 받는 세례. 소속을 뜻한다(프레임 36·39·44장)

> **로마서 6:3-6**

[3]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민수기 6:24-27 ◆

하나님의 이름을 백성 위에 두는 축복. 세례의 축복 성격을 보여 준다(프레임 36·44장)

마태복음 26:26

“이것은 내 몸이니라”. 프레임은 '나타냄'으로 읽는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출애굽기 24:9-11

시내산 언약 때 장로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심. 언약의 식탁

[9]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칠십 인이 올라가서 [10]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 같이 청명하더라 [11]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누가복음 22:20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요한계시록 19:9

>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 5. 안 들려도 말씀은 말씀이다: 받아들임의 세 얼굴 (프레임 39장 · 신앙고백서 1.6)

말씀은 사본·번역·설교·성례를 거쳐 와서, 마지막에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리에 이른다. 프레임은 먼저 계시가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참으로 있다고 말한다. 거절당한 계시도 계시이고, 그래서 사람은 핑계할 수 없다. 이사야, 예수님, 바울 모두 같은 말씀이 오히려 마음을 굳게 하는 장면을 증언한다. 그러니 '안 들린다'가 곧 '말씀이 아니다'라는 뜻은 아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받아들임에는 세 얼굴이 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설명과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규범적). 순종은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상황적). 참여는 시·상징·비유·권면이 내 감정과 우선순위와 시각까지 바꾸게 하는 것이다(실존적). 우리는 읽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는 능력으로 말씀을 받는다. 그러나 죄 때문에 진리를 억누르고 거짓으로 바꾸므로, 성령께서 먼저 죄를, 다음에 용서를 보게 하시며 눈을 여셔야 한다. 신앙고백서 1.6의 “말씀에 계시된 것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이해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영의 내적 조명이 필요함을 우리는 인정한다”가 바로 이 자리다.

1. 계시는 내 반응과 상관없이 참으로 있다
2. 거절당해도 계시,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
3. 받음의 세 얼굴: 믿음·순종·참여
4. 시·비유는 감정과 우선순위까지 바꾼다
5. 성령이 눈을 여셔야 바르게 받는다

> **로마서 1:18-20 ★**
> 사람이 진리를 억누르지만 계시는 분명하다. 그래서 핑계하지 못한다(프레임 39장, 바빙크 6장 §153–155)

> **이사야 6:9-10**

[9]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사도행전 28:25-27 ★

바울이 이사야를 인용하며 “성령이 …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라고 함(프레임 39장). 28:25는 신앙고백서 1.10의 증거 구절이기도 하다

마태복음 11:27 ★

아들이 계시하시는 자만 아버지를 안다. 믿음을 낳는 앎은 선물이다(프레임 39·44·45장, 바빙크 6장 §130–131)

야고보서 1:22-25 [보충]

듣기만 하고 잊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 순종으로서의 받음

시편 1:2 [보충]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함. 참여로서의 받음

“성경은 우리가 창조 안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안경(spectacles)이다.” — 프레임

📜 6. 느낌은 저울이 아니다: 신앙과 신학은 경배로 끝난다 (바빙크 6장)

바빙크는 종교적 경험을 신앙의 근거로 삼은 슐라이어마허와 프랑크를 비판한다. 경험은 말씀이 일으키고, 신앙을 뒤따르며, 늘 성경으로 바로잡힌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믿습니다”를 “경험합니다”로 바꿀 수 없고, 기준은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다. 그렇다고 바빙크가 경험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시편이 보여 주듯 경험은

말씀), 같은 대상(하나님에 대한 지식), 같은 목표(하나님의 영광)를 나누며 정도만 다르다. 교의는 고립된 몇 구절이 아니라 이미지·비유·의례·역사까지 포함한 성경 전체에서 세워진다. 이것은 프레임이 말하는 '참여'와 같은 결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은 무지가 아니라 죄다. 그래서 신앙은 경이로, 지식은 경배로, 고백은 찬양으로 끝난다.

1. 경험은 말씀이 낳고 신앙을 뒤따른다
2. 신앙의 저울은 느낌이 아니라 성경
3. 신앙과 신학은 같은 말씀·같은 목표
4. 교의는 성경 전체, 비유·의례까지에서
5. 아는 것은 경배와 찬양으로 끝난다

> **이사야 8:20**
> 경험이 아니라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 기준이다
>
>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 **로마서 12:1**
> '합당한(이성적) 예배'. 신앙과 이성은 충돌하지 않는다
>
>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 **로마서 12:3**
>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 신학의 사변을 경계한다
>
>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 **고린도전서 13:12**

>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요한복음 17:3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신앙은 생명인 지식이다

>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 7. 사람이 말씀의 창이 된다: 보고 배우는 말씀 (프레임 43장)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타락 뒤에도 하나님을 비춘다. 구원은 그 형상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된 신자의 삶은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 주는 계시가 된다. 프레임에게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적용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보며 가장 잘 배운다. 본받음은 사슬처럼 이어진다.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그리스도가 모범이시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본받으라”고 한 사도들, 본이 되어야 할 지도자들을 거쳐 우리 서로에게 이른다. 그 정점은 속죄의 사랑이다. 우리는 남의 죄를 갚을 수 없지만, 그분처럼 목숨까지 내어 주는 사랑으로 부름받았다. 사도들이 편지보다 직접 만나기를 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사랑과 사는 모습은 얼굴을 볼 때 더 온전히 전해진다. 여기서 '계시'는 성경에 무엇을 더하는 것(신앙고백서 1.6이 금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이 사람의 삶에 보이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 이 구분은 정리자의 설명이다.

1. 이해한다는 것은 적용하는 것이다
2. 적용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서 배운다
3. 본받음: 하나님→그리스도→사도→우리
4. 정점은 목숨까지 내어 주는 속죄의 사랑
5. 사랑과 삶은 얼굴을 볼 때 더 전해진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요한일서 3:16

그가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해. 속죄의 사랑을 본받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이서 1:12

종이와 먹보다 대면해서 기쁨을 충만하게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4:12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히브리서 13:7

말씀을 전한 지도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 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구속되고 성숙한 인간의 삶은 심오한 계시의 양식이다." — 프레임

📜 8. 돌판에서 마음판으로: 새 언약 (프레임 44장 · 바빙크 6장)

그래서 집과 길에서, 손목과 이마와 문설주에까지 말씀을 두게 하셨다. 생각할 틈이 없을 때도 말씀이 결정을 이끌 만큼 몸에 배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남은 자'만 그랬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은혜로 주실 새 마음을 내다보았고, 예레미야 31장은 법을 마음에 기록하는 새 언약을 약속했다. 히브리서 8장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이 언약을 세웠다고 말한다. 바울은 문제투성이였던 고린도 교회를 '성령으로 육의 마음판에 쓴 그리스도의 편지'라 불렀다. 자주 넘어져도 신자의 가장 깊은 성향은 순종을 향한다는 뜻이다. 바빙크도 예언자들이 약속한 영을 성령 증언의 배경으로 든다. 그리고 그 영은 새 진리의 원천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마음에 인치시는 분이라고 말한다.

1. 마음 = 감정이 아니라 인격의 중심
2. 말씀이 몸에 배도록 처음부터 원하셨다
3. 새 언약: 법이 돌판이 아닌 마음에
4. 넘어지는 교회도 '그리스도의 편지'
5. 성령은 새 진리 아닌 성경을 마음에 인치심

> **신명기 6:6-9**
>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 전체를 말씀으로 두르라
>
> 6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 **시편 119:11**
> 범죄하지 않으려고 말씀을 마음에 둔다
>
>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 **예레미야 31:33 ★**
>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리라. 새 언약의 핵심(프레임 44장은 31:31-34, 바빙크 6장 §150–152는 31:34를 인용)

새 마음과 새 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프레임 44장, 바빙크 6장은 36:25 이하)

히브리서 8:10

예레미야를 인용함.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새 언약을 세운다(프레임 44장, 8:1-13 안)

>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고린도후서 3:3

성령으로 육의 마음판에 쓴 그리스도의 편지(프레임 44장, 3:2-3)

>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히브리서 4:12 [보충]

살아 있는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이 마음까지 파고든다

📜 9. 계시의 목적지는 마음: 일반·특별·실존 계시 (프레임 44장 · 45장 · 신앙고백서 1.5, 1.10)

프레임은 책 전체를 돌아보며 정리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말씀·사람이라는 세 통로로 온다. 그리고 원본에서 출발해 필사·번역·설교·성례·신학·고백서·수용·해석·확신을 거쳐 마음에 이른다. 자연과 성경 속 말씀은 내 생각과 상관없이 그대로 있는 객관적 말씀이다. 그러나 말씀의 목적은 소통이므로, 듣는 이의 마음에 기록될 때 완성된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에 일어나는 앎에도 '계시'라는 말을 쓴다. 다만 이것은 새 책이 아니라 이미 주신 계시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일이다. 전통적인 일반·특별계시 구분은 타락 전 에덴의 말씀 같은 경우에 어색해진다. 그래서 프레임은 세 관점을 제안한다. 모든 대상 속 계시인 일반계시(상황적), 삶의 기준을 주며 '안경'이 되는 특별계시(규범적), 계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실존계시다. 셋 중 하나가 없으면 나머지도 없다. 신앙고백서는 같은 자리를 '계시'가 아니라 "말씀에

부른다. 그리고 최고 재판관을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1.10)으로 못 박는다.

1. 말씀은 내 느낌과 무관하게 객관적이다
2. 그러나 목적지는 마음, 거기서 완성된다
3. 마음의 '계시'는 새 책이 아니다
4. 일반(상황)·특별(규범)·실존 계시
5. 판결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 **이사야 53:1 ◆**
>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믿는 자 안에 일어나는 계시(프레임 44·45장)

> **마태복음 11:27 ★**
> 아들이 원하는 자에게 아버지를 계시하심. 선물로 주어지는 앎(프레임 39·44·45장, 바빙크 6장)

> **에베소서 1:17 ◆**
> 지혜와 계시의 영. 새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아는 것(프레임 39·44·45장)

> **요한복음 3:3 ★**
>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프레임 44장 참고 구절, 바빙크 6장 §154)

“우리 마음은 하나님 계시의 최종 목적지이다.” — 프레임

🗣️ 다섯 목소리

책	이 편의 질문에 대한 답(한두 문장)	특별히 강조하는 것	비워 둔 것
프레임	말씀은 설교로 귀에, 성례로 눈과	성례도	느낌·경험이

책	이 편의 질문에 대한 답(한두 문장)	특별히 강조하는 것	비워 둔 것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믿음·순종·참여로 받기를 원하신다.	계시의 창, 실존계시	따지지 않음 — 바빙크가 메운다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 6장	경험은 말씀이 일으키고 신앙을 뒤따를 뿐 신앙의 저울이 아니다. 신앙과 신학은 같은 말씀에서 나와 경배로 끝난다.	경험을 성경 아래 두기, 머리와 가슴의 통일	설교·성례가 말씀의 통로라는 논의는 이 재료(계시·성경·신앙) 범위 밖 — 프레임이 메운다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	이 주제를 다루지 않음 — 프레임이 메운다.	(이 편 재료에 없음)	설교·성례·마음에 쓰기 전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장은 설교와 성례를 다루지 않는다(27–29장의 몫). 다만 확신은 말씀으로, 말씀과 함께 마음에 증언하시는 성령에게서 오고(1.5), 최종 판결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께 있다(1.10).	성령과 말씀을 떼지 않음	말씀이 사람에게 전달되는 구체적 길 — 프레임이 메운다
오웬 『신적 기원과 자증성 논고』	이 주제를 다루지 않음 — 프레임과 바빙크가 메운다.	(이 편 재료에 없음)	설교·성례·마음에 쓰기 전체

- 프레임은 말씀이 '어떻게 오는가'의 경로를 채운다. 바빙크는 그 끝에서 느낌이 차지하는 자리를 바로잡는다. 경험은 말씀을 뒤따르고 성경으로 재어진다.
- 신앙고백서 1.5·1.6·1.10의 '말씀으로,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은 두 사람의 말을 묶는 매듭이다. 프레임의 '성령이 마음판에 쓰신다'와 바빙크의 '조명은 새 진리의 원천이 아니다'가 여기서 만난다.
- 용어만 다르다. 프레임은 마음에 일어나는 앎을 성경의 용례대로 '계시'(실존계시)라 부르고, 고백서와 바빙크는 '증거·조명'이라 부른다.

- 워필드와 오웬이 이 편에서 비운 자리, 곧 말씀이 귀·눈·손·삶으로 오는 길은 프레임이 채운다. 반대로 프레임 45장이 목록으로만 언급한 자증·내적 증거의 깊은 논증은 앞 편들에서 오웬과 바빙크가 이미 채웠다.
- 남는 긴장이 하나 있다. 프레임은 '설교의 중심성'을 상대화하지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55문은 '특히 설교'를 성령께서 쓰시는 효과 있는 수단으로 강조한다. 다섯 재료 밖의 문서이지만 비교할 때 짚어야 한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성령의 내적 증거
성령께서 말씀으로, 말씀과 함께 우리 마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온전한 확신을 주시는 일이며, 새 계시를 주시는 것이 아니다.

자증성
성경이 교회나 사람의 보증에 기대지 않고 그 자체의 빛과 능력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드러낸다는 성질이다.

충족성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믿음·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성경에 담겨 있어, 새 계시나 사람의 전통을 더할 필요가 없다는 성질이다.

명료성
구원에 필요한 것은 성경 어딘가에 분명히 드러나 있어, 배우지 못한 사람도 통상적 수단을 바르게 쓰면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는 성질이다.

자필본
성경 저자가 처음 기록한 원본으로, 영감과 무오성은 엄밀히 이 원본에 속한다.

성령의 조명
성령께서 마음을 밝혀 이미 기록된 말씀을 그윈에 이르도록 깨닫게 하시는 일로, 새

성례(보이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세례와 성찬으로, 복음을 눈·손·입으로 받게 하는 '표'이자 하나님이 약속을 도장 찍듯 보증하시는 '인침'이다.

새 언약
예레미야가 약속하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언약으로, 하나님의 법이 돌판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신자의 마음에 기록되는 언약이다.

일반·특별·실존 계시(프레임의 재정의)
모든 대상 속 계시(상황적), 삶의 기준을 주는 말씀 속 계시(규범적), 그 계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인격 안의 계시를 서로 없이는 없는 세 관점으로 묶은 틀이다.

특별직분·일반직분
은사와 부르심을 받아 교회가 세운 공적 직분(목사·장로)과, 모든 신자가 제사장으로서 함께 가진 섬김의 자리다.

💬 청년의 삶으로

✅ 이 편의 결론

- 하나님의 말씀은 원본에서 설교·가르침·성례·사람의 본을 거쳐 오늘 우리에게 오며, 성경을 참되게 전하는 만큼 그 모든 통로에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듣는다.
- '안 들린다'는 경험이 말씀을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 계시는 객관적으로 있고, 경험은 말씀을 뒤따르며 성경으로 재어진다.
-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들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새겨지는 것이다. 새 언약에서 성령께서 법을 마음판에 쓰신다.
- 마음은 계시의 최종 목적지다. 그러나 그 마음에서 일하시는 분은 성경 밖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다(신앙고백서 1.10).

📚 이 편의 책별 정리 노트

- 프레임 · 가르침과 설교
- 프레임 · 성례
- 프레임 · 인간의 성경 수용
- 프레임 · 계시로서 인간
- 프레임 · 마음에 쓰기
- 프레임 · 요약 및 구조적 성찰
- 바빙크 · 6장 신앙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